

97.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부비동염

성별 남 **나이** 35세 **직종** 자동차 부품 제조업 **업무관련성**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백○○은 (주)OO에 2003년 3월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년 12월 시행한 부비동 CT에서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되었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백○○는 절단반에서 넘어온 라이너소재를 쌍축보링기 위에 하나씩 두 개를 올려놓고 내경가공을 한다. 8시간 기준 32개의 바이트를 교체하며, 교체할 때 가공에서 발생된 철분진을 에어건으로 에어를 쏘서 바이트 주위에 있는 분진을 제거하여 교체작업을 수행한다. 금속가공류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공정이었다. 또한 집진기가 1대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분진통을 비우고 필터 교환시 분진발생이 심하며 분진 접촉 강도가 심한 작업이었다. 평소 호흡보호구는 착용하였다.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 LINER가공과의 건식가공과에서는 분진(2종)만 측정하였으며 노출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입사때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만성치주염이라는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, 2004년부터 양쪽 어금니쪽 잇몸에 붓는 증상이 있어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5년까지 진료를 받아왔다. 그 외에 특이소견이 없었다. 2005년 10월 A병원에서 전두동골종과 경막외농양으로 수술치료를 하고 2005년 12월 12일 현장에 복귀하였다. 입사 이후 두 세달 이후부터 경미한 코막힘 등의 증상으로 2005년 8월 O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급성부비동염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해왔다. 이후 A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인해 검사를 받던 중 만성부비동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치료를 받았다.

4. 결론: 백○○의 만성부비동염은

- ① 만성부비동염은 근로자가 생산부서 작업 중에 발생하였는데,
- ② 동료근로자들 중 비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,
- ③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크롬 등의 중금속과 인접부서의 금속가공유, 포름알데히드 등의 물질에 노출되었는데, 이는 비염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, 아직까지 만성부비동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,
- ④ 의무기록 검토결과 근로자 백동현은 만성부비동염 진단 당시 치주염 또는 치은염으로 자주 진료를 받아왔고, 치과질환은 만성부비동염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병리학적, 시간적 인과관계가 분명하여,

근로자 백○○의 만성부비동염은 작업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